



공·금·함·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사 양 ●●

Q 임신돈은 분만하기 며칠 전까지 항생제 치료가 가능합니까?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임신돈이라고 해서 며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필히 해야 할 개체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항생제는 임신이나 포유 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투여나 과량 또는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제제(예: 콜리스틴제, 유성제제) 등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일반 항생제는 꼭 치료를 요할 때는 쓰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새끼보다 모돈이 중요할 때도 있겠죠?

보통 유산 등은 일반 항생제 보다는 주사 스트레스나 아픈 것 등이 더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Q 종부 후 5일 정도 지났는데 열은 없지만 밥을 잘 안 먹고 건드려 깨우면 일어나서 조금씩 먹기를 반복하다가 4일 만에 폐사하였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분만 후 모돈 외음부가 많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1. 종부 후 5일 정도에 식욕부진과 체온은 정상이고 3~4일 정도 있다가 폐사한 것만으로 확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시기 발생 가능한 문제라면 일반적으로 요도염이나 방광염인데 그들은 발열이 특징이고, 간혹 심한 스트레스나 쇼크 시 체온은 정상이거나 하체온이면서 식욕부진과 심하면 폐사까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체온체크를 확실히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다양한 진단도 가능하답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염증성질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심한 위궤양, 중독증, 만성 호흡기 질병 등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일 때의 체온은 정상이나 하체온일 경우가 많습니다.

2. 분만 후 외음부가 많이 붓는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 1) 유도분만제를 사용할 경우
- 2) 전고후저 자세 즉, 돈사 구조상 뒷부분이 너무 낮을 경우 (체액이 뒤로 쏠려서)
- 3) 난산 처치나 손 삽입 시
- 4) 곰팡이 중독 등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을 경우
- 5) 기타 케이지 등 물리적인 요인 등

Q 분만한 모돈에게 식욕회복(촉진)제를 모두 해주면 좋나요? 해서 좋다면 방법과 용량을 알려주세요.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식욕촉진제의 의미는 대사촉진제나 비타민제 또는 아미노산제 등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모든 분만 모돈에게 투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체별 분만 후 회복이 지극히 정상인 모돈에게는 투여하지 않아도 되며, 분만 후 산욕마비나 식욕부진 등 특별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만 투여하시면 됩니다. 어떤 약제를 투여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나 치료 등이 필요할 때만 주사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주사 스트레스만도 1~4주를 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때에도 원인별, 예를 들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식욕이 없을 때는 염증성질환(주로 자궁질환이나 유방질환) 가능성이 많으므로 항생제, 해열진통제, 대사촉진제 등을 1일 1회 3~4일 투여하시고 용법은 설명서를 참조(제제별 투여용량이 틀림)하십시오.

체온이 높지 않을 때는 위궤양이 심하거나 유열 등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그 때 칼슘제와 대사촉진제 등을 병용하여 투여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질 병 ●●

Q 요즘 PMWS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농가입니다.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A <황윤재 강원양돈농협 실장>
 제 경험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1. 동절기 이유자돈사의 환기, 온도관리 개선입니다. 그런데 이유자돈사는 대부분 기계환기를 하기 때문에 수용두수와 돈사크기에 맞는 환기관리를 하자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겨울철 환기의 요체는 음압식의 경우, 돈사의 낮은 곳에서 배기하되 돈사내 습도가 60%를 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환기량을 빼주는 것이고 입기는 돈사의 높은 곳에서 하되 자돈에게 온도충격이나 셋바람 충격을 주지 않게 해야 하므로 상당히 정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온도가 거의 일교차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이유는 되도록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즉, 충분한 체중을 확보한 후 이유하면 그만큼 이유티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이유돈사의 온도관리가 적절하다면 이유 직후 며칠간은 양질의 대용유를 사용해 액상급이를 시도하면 먹이변경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사용하는 대용유는 원유(우유)함량이 적어도 60%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유자돈에게 여러 가지 호흡기백신을 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를 신중하게 재검토 하십시오.

5. 항생제의 투여는 꼭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하겠지만 되도록 어린 일령에는 살균성 항생제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적어도 분만사와 초기 자돈사에 올인 올아웃이 될 수 있도록 돈사구조를 바꾸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가능하다면 시군의 도움을 받아 컨테이너 돈사를 들여놓는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양돈**